

경인일보(96년~현재)

수원상의, 직업진로캠프 보고회
학생 적성 탐색·취업 역량 강화

수원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수원시 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수원 직업진로 캠프 총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재욱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방광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진로캠프 참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 직업진로캠프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원지역 8개 직업계고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총 5천 150명이 수료했다. 이날 보고회는 삼일고등학교 차어리당 동아리 '아에토스'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진로캠프 운영 결과 보고 영상 상영과 우수 학생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8개 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김달호 매항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은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이번 직업진로캠프가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지도를 건네준 것 같다"며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수원특례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수원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상공회의소가 2026년 수원 직업진로캠프 총평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상의 제공